

40%는 장애 겪어... 뇌출혈, 발생 2주후 치료 시작해야



건강 바로 알기 뇌졸중 재활치료

동행재활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조경은 원장

의료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과연 무엇일까? 2019년 질병별 사망률 통계를 살펴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순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질환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일까?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해보면 결과는 예상 밖이다. 다양한 질병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질환의 1순위는 압도적으로 뇌혈관질환이다. 그렇다면 의료인들은 왜 뇌혈관질환을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할까?

여기서 뇌혈관질환이란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들을 총칭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이다.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 되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나뉜다.

◇장애 남을 가능성 높은 질환=의료인들이 뇌졸중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특히 40% 정도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장애를 겪게 된다. 반신마비에 의한 보행 장애 및 이

의료인들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누워있는 시간 줄여 합병증 예방
장애 최소화·일상 복귀가 목적
기능 회복 때까지 꾸준한 치료 중요

동 장애, 통증을 포함한 감각 장애, 언어 장애(실어증), 인지 장애(기억력, 판단력, 지남력 등), 삼킴 장애, 시야 및 시력 장애, 의식 장애(혼수, 혼미 상태 등), 어지럼증 및 두통 등의 다양한 장애 및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우울증과 혈관성 치매 등 이상 행동 증상을 동반하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와 후유증으로 인해 뇌졸중 환자들은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철저한 예방을 통해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줄이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뇌졸중 초기에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합병증(폐렴/요로감염/욕창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환자 상태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치료에 적응해 나가는 단계가 되면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줄이려면 발병 초기에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누워 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예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동행재활요양병원 제공>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하게 된다. 재활치료의 일차적인 목표는 '장애의 최소화'이지만, 기능 회복을 통한 '일상 또는 사회로의 복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재활치료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한 후 약물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가 끝나고 나서 생체 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가 4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안정되면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의 시작 시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뇌경색의 경우는 발생 후 3-4일 이후부터, 뇌출혈의 경우는 발생 후 2주 이후부터가 일반적이다.

초기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는 뇌졸중 이후에 장애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의 복귀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뇌졸중 초기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해 기능 회복 시까지 꾸준하게 치료

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재활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재활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또한 환자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재활치료는 어디서 어떻게?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에 대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환자와 가족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재활치료를 이어가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어디에서 재활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장기 예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활을 위한 병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담당 의료진의 역량 및 재활을 운영하는 시스템, 병실과 병동의 쾌적성, 보유 장비 및 전문 재활 치료사의 수와 구성, 간병 시스템, 상급 병원의 연계 시스템, 접근성과 편의시설 등이 있었다.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은 입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받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을 보내게 될 병실 및 병동 환경도 중요하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병실과 재활치료실 및 편의 시설 등을 확인하고, 재활 치료에 대해 담당 재활의학과 의사와 면담도 진행해보면 좋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병원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해 보거나 유선상으로 위에 열거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진단검사 20·30대 35% 최다 확진율 10대가 10.3%로 최고

전남대병원 코로나 검사 4만 5784건 분석

확진율, 여성이 남성보다 10% 높아

양성 확진율 고령층서 비교적 많아

전남대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지난해 시행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는 젊은층(20·30대)이 많이 받았고, 양성 확진율은 10대를 제외하고 고령층(60·70대)이 비교적 높았다. 또 여성이 검사수와 확진율에서 남성보다 각각 10% 높았다. 특히 10대의 양성 확진율이 높아 향후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분자유전검사실의 코로나19 진단검사팀이 지난해 2월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총 4만 578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단 PCR 검사 총 건수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포함하고, 1인 중복 검사도 포함된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검사건수를 연령별로 보면 20대(20~29세)가 18.8%인 86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30~39세)가 15.7%(7185건)로 두 번째

로 많았다. 이어 40대 14.7%(6725건), 50대 14.6%(6690건), 60대 13.0%(5943건), 70대 10.4%(4775건), 80대 6.3%(2870건) 순으로 나타나, 고령층일수록 검사 건수가 적었다.

양성 확진율에서는 검사건수 대비 10대가 검사건수 1181건 중 122건인 10.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9.7%, 70대 8.1%, 50대 7.8%, 40대 5.3%, 80대 4.9%, 30대 4.2%, 20대 4.1% 순이었다.

10대를 제외하면 양성 확진율은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검사건수(2만 5064건), 양성 확진(1585건)에서 각각 55%를 차지, 남성(검사건수 2만 720건, 양성 확진 1321건 각 45%)보다 각각 10%씩 많았다.

또 월별로는 검사 첫 달인 2월 891건이었지만 바로 다음 달 1946건으로 2배 이상 많아졌으며, 6월까지 1200여건을 유지하다 7월 3700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월 평균 검사 건수는 139건이며, 11월 14일 19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남대병원 직원 대상 전수조사(4회)를 시행했던 11월(1만 5614건)과 12월(1만 1025건)에는 1만건을 넘기도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간호학과 간호교육 '5년 인증' 획득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간호학 학사학위 프로그램(5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오는 6월13일부터 2026년 6월12일까지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재학생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등이 국가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며, 의료법에 따라 이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광주여대 간호학과는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시설 및 설비, 교육성과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서류평가와 방문평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도운영 간호학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인성과 탁월한 전문성을 겸비한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 환자 39명 '완치잔치'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이 최근 소아청소년과에서 39명의 완치 어린이 축하를 위한 '제20회 소아암·백혈병·희귀질환 완치잔치'를 열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 조촐하고 간소하게 진행됐다. 내·외빈들을 일절 초청하지 않았고, 39명의 완치 환자 중 일부만 참석토록 했다. 국훈 전 전남대어린이병원장·백혈조 소아청소년과장 등 의료진들은 이날 참석한 환자들에게 일일이 완치메달을 걸어주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주최했던 환자들의 백일장 시상도 있었다.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질환을 치료받고 완치메달을 목에 건 김모(18)군은 "힘겨운 치료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보살펴 준 의료진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명근 원장은 "매년 새해초 소아암 환자들의 완치잔치를 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극복 염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전해, 더욱 뜻깊다"며 "아직 투병중인 암환자들의 행복한 치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전남대병원은 2004년 개원 이후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900여명의 환자들을 치료해왔다. 그 중 완치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소아암 환경보건센터·호남권 희귀질환센터를 운영하며 치료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